

# 한반도 분단을 이해하는 다섯 개의 키워드

홍세화

1. 들어가는 말—분단국가의 어긋난 풍경 사이에서
2. ‘반도(peninsula)’라는 지정학적 숙명
3.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4. 이념과 체제의 대립
5. 세대와 문화의 변동
6. 탈분단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변증법

## 1. 들어가는 말—분단국가의 어긋난 풍경 사이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프리즘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다. 그 세계화가 고도화된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동북아에 위치한 작은 분단국가 한국의 도약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 10위의 국가경제력, G20 정상회의 의장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결정,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의 눈길을 끄는 K-POP 등, 한국의 눈부시게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징표는 적지 않다. ‘지리의 종말(the end of geography)’ (폴 비릴리오Paul Virilio)이 이야기되면서 ‘지구촌’이 빠르게 하나의 단일시장이 되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IT 강국으로 이미 세계화가 일상의 현실이 된 사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사회에 한 발자국만 더 접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글로벌 코리아’의 면모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분단국가의 낯선 풍경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8개월 전, 그곳 수도로부터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한국 해군 소속 함정이 침몰하여 46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참가국 정상들이 서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이 남한 영토인 서해 연평도를 향해 170발의 포격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 북한의 연이은 신형 미사일 개발과 실험, 핵무기 개발 유혹 등을 떠올리면 한반도는 ‘탈냉전’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매우 위험한 ‘냉전의 화약고’처럼 여겨질 것이다.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분단 상황은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모순된 풍경(이미지)이 지니는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후자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이 그려가고 있는

긍정적인 미래를 가로막는 파국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글은 자본주의 세계화를 향한 무한경쟁 과정에서, 마치 서독에 의한 동독의 통합(1990)처럼,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남한의 경제적 우위에 따른 ‘북한의 남한화’가 진행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분단의 미래 전망을 그려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독자들에게 미래가 아닌 현재, 즉 앞서의 두 가지 모순된 풍경이 날카로운 긴장을 내부에 지니면서도 그대로 멈춰선 것 같은 ‘기묘한 정지’에 주목하기를 권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 G20 회의가 열린 때로부터 가까운 시간을 전후해 벌어진 두 가지 군사적 사건은 마치 정지된 풍경처럼 고정되어 있었고, G20 국가의 정상들은 한국의 수도를 찾아왔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났다. 마치 잘 조율된 연극을 보는 것처럼, 군사적 갈등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에서라면 국지전으로 발전할만한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조차도 정지된 풍경으로 만드는 이 현실의 배후에 작동하는 다른 힘(요인)은 무엇이이었을까? 혹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을 이해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지 않을까? 나는 바로 이 질문을 글의 시작으로 삼고 싶은 것이다.

## 2. ‘반도peninsula’ 라는 지정학적 숙명

나는 한반도 분단(또는 한국사회)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1. ‘반도’라는 지정학적 숙명, 2. ‘전쟁-휴전체제’, 3. ‘이념과 체제’의 대립, 4. ‘세대와 문화’의 변동, 5. ‘탈분단-평화와 공존’의 기반, 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그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에 관한 것이다.

동북아의 끝자락에 자리한 한 ‘반도’가 겪어온 지리적 숙명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역사학에서 대비되는 두 대가로 일컬어지는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과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을 떠올리게 된다. 본디 지리학에서 출발한 프랑스 아날(Annales)학파의 브로델이 국가나 도시, 그곳의 거주민이 지정학적 조건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따라 번영과 쇠락이 결정된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홉스봄 역시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외부의 힘에 대해 그저 반응할 뿐이라고 말이다.

반도는 대륙과 바다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거꾸로 대륙과 바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의 분단은 반도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존재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1945년에 시작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이념(이데올로기)의 차이가 가져온 것이라기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여기서 대륙세력이란 러시아(구소련)와 중국을 말하고, 해양세력이란 미국과 일본을 말한다. 그보다 50여 년 전의 청·일 전쟁(1894~1895)도, 러·일 전쟁(1904~1905)도, 또 러·일 전쟁이 있기 전 제정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38도선’이나 ‘39도선’으로 갈라 나누어 가지려 했던 역사적 사실도, 2차 대전 이후 패전국인 일본이 독일처럼 분단되지 않고 식민지 피해자인 한반도가 분단되었던 것도, 또 전후 사회주의 진영이 허물어진 뒤 독일은 통일되었으나 한반도는 지금까지 ‘20세기 냉전의 마지막 섬’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 ‘대륙 대

해양'이라는 구도가 작용한 것이고, 지금도 그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1876년 이전까지의 한반도(조선반도)는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중화(中華)'라는 일극체제 하의 주변국이었다. 명(明)나라에 이은 청(淸)나라(1636~1912)의 총리 이홍장(李鴻章)의 비유처럼, 중국은 조선반도를 자신들의 울타리로서 '순치상의' (唇齒相依; 입술과 이빨이 서로 기대다),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로 간주해왔었다. 이 중화질서에 대한 일본의 도전은 조선반도의 해계모니를 둘러싼 양국의 격렬한 충돌(청·일 전쟁)로 이어졌던 것인데, 일본 역시 조선반도를 일본의 안전에 사활적 이해를 갖는 요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반도를 다른 나라가 점령한다는 것은 일본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匕首)'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이것, '순치(唇齒) 대 비수(匕首)'의 갈등과 대결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지정학적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1910~1945)로부터 해방되자마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에 의해 분할되고 이어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앞서 말한 한반도에 대한 열강들의 '순치 대 비수'의 관점이 아니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전후 냉전질서의 고착으로서의 분단이 동아시아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전범국가 일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8일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에 이어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은 한반도의 힘의 공백으로 이어졌고, '알타(Yalta)회담' (1945. 2. 4~11.)에 따른 소련군의 진주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에 의해 '38도선' 분할점령안이 제안되었던 것이다. 이 분할점령의 경계에 따라 1948년 이후 한반도는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장구한 시간 동안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역사적 국가'로서였지 근대적 의미의 국가, 즉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과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국가의 성립은 상대의 부정과 배제가 자기의 존재와 긍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적대적인 국가형성의 과정으로 변전되게 되었다. 자기 존재의 증명을 타자 제거의 논리에서 찾는 부정적 조합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다음 절에서 언급할, 1950년에 시작된 참혹한 한국전쟁(~1953)이 그 상호부정의 극단적인 대결과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어온 전후 냉전체제가 해체됨과 동시에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의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속명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였던 까닭에 서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았지만, 독일을 계속 분단 상태에 두고서 유럽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전후 유럽을 동과 서로 양분하여 관리했던 알타체제를 종식시키는 1975년의 헬싱키 협약 이래 유럽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통일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던 것이고, 냉전 질서 아래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였을 때 독일은 즉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 속의 국가 독일과 달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미·일·중·러)의 이해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한반도는 이 네 나라 모두에 의해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전후 풍경으로 되돌아가 보자. G20 국가에 속한 네 나라 정상들은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회의에 참석하고는 한반도를 떠났다. G20 회의를 전후해 벌어진 군사적 충돌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치 정지된 풍경처럼 멈추어 섰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과 대륙세력인 이들 4강국은 전후 냉전체제가 강요한 한반도 분단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했던 자국의 발전전략과, 그리고 나아가 탈냉전 이후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국가 간 경쟁을 위해서도 한반도 분단이 여전히 요구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을 고스란히 한반도의 남과 북이 떠맡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주변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 3.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전후 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외부적 강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분단과 유사하지만, 그 외부적 강제가 가혹한 내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나라의 분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독일의 분단은 독일인들 스스로가 일으킨 전쟁의 결과였다. 전쟁 범죄에 대한 징벌과 독일의 전쟁 재발 방지의 수단으로 선택된 연합군의 분할점령 이후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 동·서 독일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후 30년도 지나지 않아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르거나 철저한 단절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한반도는 달랐다. 1948년 연이어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발발한 한국전쟁은 냉전시대 한국의 최대 사건이자 그것을 전후한 시대를 확연히 구분 짓게 하는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 근대 프랑스에 미친 영향보다 1950~53년의 한국 전쟁이 현대 한국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은 역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여전히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결코 과장된 주장은 아닐 것이다.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내상(內傷)을 남겼다.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되었고, 군사적 충돌이 어떤 규모로 전개되었는가, 나아가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어느 쪽에 물을 것인가를 서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도 아니거니와 그러한 역사적 사실보다 한반도의 분단을,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쟁이 한국인들에게 남긴 상흔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니, 이 전쟁의 상흔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분단국가인 한국사회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하고픈 것이다.

오랜 식민지 상태(1910~1945)로부터 연합군에 의해 ‘타율적으로’ 해방된 이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 전쟁에 이른 5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근대 국가의 상(像)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으로 인해 통일된 근대 국가 수립이 실패한 후 남과 북에 수립된 적대적인 두 국가의 출현은 한 민족구성원의 급격한 두 분단국가로의 분화와 이 분화에 따른 충성과 반역의 교차를 빠르게 생성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폭력을 잉태하고 진화시켜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의 폭발이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네 가지 수준의 폭력이 실행된 장場이었다. 하나는 국가 대 국가의 폭력 교환으로, 남과 북의 정권은 근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폭력, 다시 말해 군사적 승리를 통해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했다. 둘은 남과 북의 국가가 자기 체제 안에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혹은 세력)과 폭력을 교환하거나(좌·우의 반란이나 게릴라 투쟁 등) 멸살하려 한 것이었다. 셋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갖는 민중(인민)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폭력의 교환이었다. 넷은 소련의 전쟁 용인과 미국의 신속한 참전, 그리고 중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승패를 가르는 거대한 전쟁터가 됨으로써 발생한 외부세력과 한국 민중의 충돌이었다. 한국전쟁에서 한국 민중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은 이러한 네 수준의 폭력이 한반도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후일 일본 총리 요시다(吉田茂)가 한국전쟁을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듯, 주변국들은 전후 냉전체제에서 각기의 이익을 얻었지만 한반도 민중은 죽음과 공포의 기억, 그리고 이산(離散)의 현실을 지금도 되새기고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한국전쟁이 역사적인 의미에서든, 정치적인 현실에서든, 특히는 인간적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1953년에 일단락된 한국전쟁은 항구적인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쟁에 개입된 국가 간에 체결된(미국과 중국·북한을 양 당사자로 하는) 휴전협정에 의한 전쟁의 중단 상황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 휴전체제를 근거로 한 군사적 대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한국전쟁을 여전히 보편 언어 ‘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독보적인 연구업적을 쌓아온 박명림이 자신의 연구가 “한국 민중의 집단적 죽음에 대속(代贖), 영혼의 안식을 위한 레퀴엠(requiem)” 이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 한국인들에게 있어 이 전쟁의 기억이 화해보다는 적대를, 치유보다는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분단문학의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196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4·19 혁명 이후의 분위기에 힘입어 이 작품을 발표한 뒤 12년 만에 다시 쓴 서문의 제목을 「이명준의 진혼(鎭魂)을 위하여」라 붙였지만, 정작 해방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랑의 한국사를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애를 지니고 살아가려던 작품의 주인공 이명준이 남과 북 양 체제에서 실패하고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을 택했던 운명의 행로에 대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제대로 이야기된 바 없다는 것이 나

의 판단이다. 전쟁의 잠정적 종단을 의미하는 휴전체제는 아직 전쟁과 분단을 두려움과 공포를 내장한 침묵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한국전쟁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남·북한을 아울러) “너는 누구(어떤 이념)의 편이냐?”고 묻는 질문 앞에 세워졌던 갑작스런 경험이었다. 1988년에 발표된 이청준의 소설 「전깃불 아래의 방백傍白」의 주인공 화자(話者)의 ‘자아망실증自我亡失症’은 이 공포스런 경험과 직결되어 있다. 상대방은 자신을 볼 수 있으나 자신은 정작 앞의 상대를 분별할 수 없는 ‘전깃불 앞에서’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두려움과 공포—만일 당신이 한국의 40대 이상의 누군가에게 한국전쟁을 규정했던 이념의 갈등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쭈뼛거린다면, 그의 부모세대나 혹은 그 자신이 그 갈등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 4. 이념과 체제의 대립

1961년이라는 시점에 한국에서 최인훈의 『광장』이 나온 데 비해, 그 두 해 전인 1959년에 독일 분단문학의 시작이자 기념비적인 고전으로 이야기되는 우베 윤존(Uwe Johnson)의 소설 『야콥을 둘러싼 추측들』(1959)이 발간되었다. 이 책의 출간과 함께 서독으로 건너온 이 동독 작가가 그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제3국인 영국에 정착하는 것도 시사적인데, 동독의 슈타지(Stasi; 국가안전부 소속의 비밀경찰)가 그의 아내를 비공식 정보원으로 포섭하고 자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이 스토리는 2007년 한국에서 개봉된 독일 영화 <타인의 삶>의 모티브를 이룬 것 같다.)

소설 『야콥을 둘러싼 추측들』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야콥은 언제나 선로를 가로질러 넘어 다녔다.” 안개 짙은 11월의 아침, 동독의 국철에서 근무해온 스물여덟 살 난 야콥이란 청년이 서독을 방문하고 돌아온 날 아침 선로를 건너다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다. 그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의 수렁거리는 대화가 시작되고, 늘 건너다니던 철길에서 기관차에 치인 주인공의 죽음이 자살인가 정치적 타살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고사인가를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삶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사회주의 동독에서 아무런 정치적 관심이 없는 채로 성실하게 일해 오던 철도원 야콥의 삶은 어느 날 슈타지의 공작 대상이 됨으로써 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어린 시절 오누이처럼 자란 게지네—서독의 나토NATO에서 통역원으로 일하는—를 포섭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를 위해 서베를린으로 가지만 자본주의가 낯설게 느껴졌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게지네 곁에 머물 결심을 못하고 동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도착한 날 아침 출근길 평행선으로 달리는 철로의 양쪽을 건너려다 죽음을 맞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두 가지 다른 사상과 체제가 대결하는 동·서 독일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안 몸담고 살아온 사회주의 동독을 택한 것인데, 그러나 그 문은 그에게 출구가 아니라 닫힌 문이었던 것이다. 소설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1961) 바로 직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데에서 묵시록

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비록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래로 동·서독 간에 ‘가로지르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대로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달랐다. 3년간의 가혹한 전쟁을 치른 한반도의 남과 북은 이후 서로 다른 이념의 토대 위에서 치열한 체제경쟁에 돌입한다. 그것이 설사 전쟁과 같은 유형의 격돌은 아니었을지라도, 준전시체제적인 국가 주도 발전전략의 추구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념적 틈새도 허용치 않는 것이었으며, 그에 위배되는 사고나 행위는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를 배경으로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지만, 3개월 만에 남한에서는 군사적 권위주의 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유신체제’가 등장하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확립하고 김일성 세습독재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에서 보듯이 남과 북 양 체제는 더욱 경직되고 폐쇄적인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체제경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국가 권력의 측면에서 볼 때 남과 북의 두 통치집단은 이른바 ‘적대적 공생(共生)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남한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가 하면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적대하거나 경쟁하는 논리의 근거를 통해 각각의 권력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체제의 정당성을 상대에 대한 무한경쟁과 상호부정에 둘수록 내부적으로는 이념의 차이에 대한 획일주의적 불관용과 억압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공(反共)과 반제(反帝) 규율사회는 상이한 목표 아래 형성되고 강화되는 총동원체제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충성도를 고양시키는 ‘국민화’ 기제를 작동시킨다. ‘아버이 수령’이 지배하는 북한사회는 논외로 하더라도, 준전시적 총동원체제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가부장주의와 군사주의였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는 진기한 풍경을 본 적이 있는지? 혹시 이것이 방금 말한 가부장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란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남성에게 ‘군대에 갔다 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단이 낳은 반공 규율사회와 그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이런 생각은 어떨까? 북한 정권이 입으로는 사회주의혁명을 이야기하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기실 물질적인 풍요이고, 탈북 지식인 김수행의 증언처럼, “유럽의 양옥집에서 중국 음식을 먹으며 일본 여자와 사는 것이 남자의 행복이다”라고 북한의 남성들이 일상에서 말한다고 했을 때, 남쪽의 한국사회가 앞뒤 가리지 않고 추구해온 경제지상주의적 가치도 분단체제 하의 치열한 체제경쟁의 산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의 조류 하에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결과 남과 북 사이에 흐르던 과거와 같은 이념적 적대는 약해져 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에서 비롯된 냉전체제의 지속은 ‘금강산 관광’과 ‘국가보안법’이 공존하는 패러독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경제적 곤궁을 지속하는 북한은 더욱 ‘주체성의 동굴’로, 남한(한국)은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무한경쟁의 세계화 논리를 쫓을 것이다. ‘싸구려 물건 동독’이 서독에 팔려옴으로써 독일의 민주주의가 냉전시기보다 후퇴하고 말았다(권터 그라스)는 독일 통일의 탄식 같은 것은 되돌아볼 틈도 없이 말이다.

## 5. 세대와 문화의 변동

비록 한국전쟁의 결과물로서의 휴전체제에 바탕을 둔 냉전의 질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사회는 —심지어는 북한사회까지도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탈이념적인 해체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이 빚어낸 풍경들조차 머지않아 낡은 시대의 삽화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사회를 두고 볼 때 확실히 낡은 반공 대결주의를 무기로 하는 분단의 논리가 더 이상 현실에서 위력을 떨치지 못하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은 석 달 뒤에 치러진 6월의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과거 같으면 반공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집권여당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법한데.), 지난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TV에 나와 천안함 사건을 환기시키며 호기 있게 이념 공세를 퍼부은 집권여당후보가 낙선하고 말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이 보도될 당시에도 한국의 TV를 지배했던 것은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이른바 세계 대중문화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K-POP이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분단이나 통일 문제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탈정치적 오락 프로그램들이나 한국사회의 냉혹한 경쟁원리를 반영하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점령되어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는 정도이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군사적 충돌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현실에서도 다른 한편으로 치열한 서바이벌 사회가 낳은 문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흥과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어긋난 풍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데올로기가 그 시대의 상상물이라면, 영화는 그 사회의 상상력이다.” 롤랑 바르트가 「영화관에서 나오면서」라는 글에서 한 말이다. 2000년 9월에 개봉되어 당시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기록을 낳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한반도의 휴전선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에서 남북한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총격사건을 다루는 영화였다. 영화의 전개는 비록 서로를 향한 총격과 죽음(자살을 포함하여)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지만, 스토리의 절반 이상은 북한 측 지하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병사들 사이의 친밀한 교류이다. 첨예한 대립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그들 사이의 천진난만한 행위들은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 웃음은 분단이라는 심각한 상황과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이 영화를 이전 시기의 분단을 주제로 한 영화들과는 다른 ‘탈분단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한다.

1997년에 등장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이 영화의 성공은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



는데, 그러나 이 영화가 펼쳐놓는 역사의 부채와 분단의 그늘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젊은 이들 간의 은밀한 교류는 북한군 장교의 느닷없는 출현으로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고, 그들이 함께 놀던 지하병거는 유토피아에서 곧바로 디스토피아의 공간으로 바뀌어 서로를 향한 충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긴장은 이 총격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립국인 스위스로부터 파견되어온 소피라는 이름의 여성장교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원작소설의 작가가 의도했던 아니했던, 이 중립국에서 온 한국인 여성 장교는 소설 『광장』에서 중립국으로 떠나는 배에 오른 주인공 이명준(그는 비록 자살하지만)의 자손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군사적 갈등의 현장에 ‘중립’의 자리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는 과연 있는지, 그녀의 개입으로 영화 속 총격사건이 지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총격사건의 당사자인 젊은 병사들만이 아니라, 남북한 지휘관 모두에 의해 진실은 은폐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북 당사자 모두 진상이 해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치 챈다. 그리하여 그년 점차 고립되고 자신이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력감에 괴로워한다. 비밀이 유지되어야만 지탱될 수 있는 군사적 대처와 이에 의해 지켜지는 위험한 평화!

이러한 문제설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성공을 이끈 것은 이러한 무거운 주제의식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판단을 배제한(또는 제쳐놓은) 할리우드 액션영화의 문법과 개개인들의 친숙함에 근거를 둔 코믹의 결합이었다. 로컬리티(또는 특수성)로서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내버려두었던 한반도 분단이라는 주제를 상업영화의 문법을 결부시켰다는 데 이 영화가 지닌 어색한 이중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확실히 남북한 병사들의 친교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지뢰밭 위에서의 위험한 놀이’로 비친다. 그러나 이 위험이 예기치 않게 폭발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남한 병사들이 건네준 ‘초코파이의 매혹’에 빠져드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삽화이다. 영화의 배경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삽화는 남측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문점 경비 경험이 있는 탈북 병사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것은 북측의 선망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그 선망을 영화를 통해 소비하는 세대는 통일을 관념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는 세대가 아니라 혹시 북한과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자신들의 평화로운 행복이 깨어질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새로운 세대인 것이다.

## 6. 탈분단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변증법

최근 한국의 TV에는 앞 절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했다. 그것은 지난해(2010)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지린(吉林) 시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김일성이 다녔다는 한 중학교를 방문한 것을 추적하는 한국 방송사의 취재 필름이었다. 놀랍게도(?)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너른 마당에서 학생들이 모여 체조를 할 때 틀어놓은 음악은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 원더걸스’의 댄스음악 〈nobody〉였다. 이것은 물론

중국에 널리 퍼져있다는 ‘한류’의 결과물임이 분명한데,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고, 분단체제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내면화하면서도 이에 저항하려 했던 나의 세대에게 상반되고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다.

한국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사고하는 이들에게 은연 중 자리 잡게 된, 혹은 한반도 분단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속에 내재해 있는 관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통일되는 과정을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럴 때 원더걸스의 노래 한 곡은 김일성의 동상을 무의미한 구조물로 해체하거나 무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을 결정하고 한국전쟁으로부터 분단체제의 공고화로 이른 과정을, 나아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에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이해의 교차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품화로 대표되는 세계화 속의 체제경쟁 논리로써 이를 수 있는 통일에의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통일은 선’이고 ‘모든 분단은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한반도 분단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통해 통일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해체 없이 한반도가 자유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길 또한 없는 것도 분명하다. 보다 근원적으로, 동시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을 거꾸로 뒤집어본다면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필수적이다.

이 글을 쓰는 도중 접하게 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거 소식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주의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제 한반도 냉전시대를 지배 하던 인물들의 죽음과 함께 한반도의 남과 북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느낌을 갖는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은 공히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커다란 사안이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권 구축이라는 커다란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반도의 대륙세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자유지대가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길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전격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내거는 전제조건(환율 통제 폐지 등)을 거부하고 배제됨으로써 미국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립의 격화보다는 WTO의 가입과 TPP 참여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될 것인가이다. 전자의 경우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과 한·일·대만으로 이어지는 군사 동맹을 축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여기에 TPP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군사 경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냉전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일의 사망으로 불확실성과 권력구도의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자기형성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급속히 줄어들고 말 것이다.

이 글의 첫 절로 돌아가서,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숙명에 근거해 사고할 때 한반도에 다가올 신냉전체제나 거대 자유무역지대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지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것들은 단지 외부적 힘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회 내부를 부정적으로 재편하는 강제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환기에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반도의 남과 북(의 구성원들)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평화지향적이고, 보다 더 인간다운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내부적 동의를 기반으로 건설하게 하는), 한반도가 냉전의 긴장축이 아니라 평화의 축(Pivot)으로 전환하는 길을 선택하고 실행해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